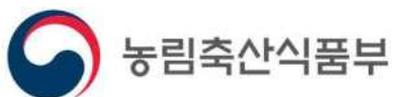


# 글로벌 정크푸드 세금 트렌드 조사

2018. 10



# [ 목 차 ]

<b>I. 정크푸드세 정책동향 분석</b> .....	<b>3</b>
1. 정크푸드의 정의 .....	3
2. 정크푸드세 도입국 현황 .....	4
<b>II. 글로벌 정크푸드 규제방안</b> .....	<b>8</b>
1. 북미 .....	8
2. 유럽 .....	17
3. 아시아 .....	27
4. 기타국 .....	33
<b>III. 한국수출기업 대응방안</b> .....	<b>36</b>
1. 수출 시사점 .....	36
2. 지역별 시장진출 대응전략 .....	37

# I. 정크푸드세 정책동향 분석

## 1. 정크푸드의 정의

- ‘정크푸드(Junk Food)’란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을 총칭
  - 탄산음료, 과지방 과자, 패스트푸드 등이 포함되며, 지방 및 인공첨가물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고열량인 반면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에는 어려움이 있음
  - 저렴한 가격으로 빠른 식사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소비자들에게 장점으로 인식되어 현대 사회에서 소비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옴
  
- 무분별한 정크푸드 섭취로 인한 성인병 발생 위험 및 비만을 증가 등으로 정크푸드 섭취를 규제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발생하는 추세
  - EU 등 유럽국가와 미국, 캐나다,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는 정크푸드 관련 광고를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음
    - 특히 스웨덴의 경우 정크푸드 관련 TV광고 송출을 금지함
  - 또한 북미 및 유럽 지역 국가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크푸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초·중·고등학교 내 정크푸드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음
  
-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정크푸드 소비억제와 관련한 국가별 규제와 기업별 동향을 조사하여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

## 2. 정크푸드세 도입국 현황

### □ 북미

-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만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으며, 정크푸드세를 부과하는 지역은 나바호 자치구 한 곳뿐임
  - 현재까지 미국의 약 30개 도시 및 주정부들이 정크푸드세의 일부인 설탕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서민 증세라는 비난 속에 다수가 실패로 돌아감
  - 일부 지역에서만 공공교육 지원 확대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설탕세 도입에 성공한 바 있음
    - 실제 설탕세가 도입되어 현재 운영 중인 지역은 버클리(Berkeley), 필라델피아(Philadelphia), 시애틀(Seattle), 볼더(Boulder) 등 소수에 불과함<sup>1)</sup>
  - 음료 뿐 아니라 식품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정크푸드세는 인디언 자치구인 나바호 자치구(Navajo Nation)<sup>2)</sup> 한 곳만 도입
- 캐나다는 2015년부터 설탕세 도입의 장단점과 실효성을 검토 중에 있음

〈표 1 -1〉 북미 주요 지역별 정크푸드세/설탕세 도입 현황

국가	세금명	적용기간	규제기준 및 기타 세부사항
미국	나바호 자치구 정크푸드세 (Junk-food Tax)	2014.2~	디저트, 튀긴 음식 및 청량음료에 2%의 추가 부과
	캘리포니아주 버클리 탄산음료세 (Soda Tax)	2015.3~	1온스 당 1센트 부과
	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설탕 첨가 음료세 (Sugar-sweetened beverage tax)	2016.6~	1온스 당 1.5센트 부과
	워싱턴주 시애틀 감미료 음료세 (Sweetened Beverage Tax)	2018.1~	1온스 당 1.75센트 부과
	콜로라도주 볼더 설탕 첨가 음료세 (Sugar Sweetened Beverage Tax)	2017.7~	1온스 당 2센트 부과
	캘리포니아주 알바니 설탕 첨가 음료세 (Sugar Sweetened Beverage Tax)	2017.4~	1온스 당 1센트, 2020년까지 유예
	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설탕 첨가 음료세 (Sugar Sweetened Beverage Tax)	2017.7~	1온스 당 1센트, 2020년까지 유예

1) 2018년 10월 기준

2) 나바호국(Navajo Nation)은 미국 애리조나(Arizona), 유타(Utah), 뉴멕시코(New Mexico)주에 걸쳐 위치한 미국에서 가장 큰 원주민 보호구역으로, 면적이 71,000km<sup>2</sup>에 이릅니다

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	당분 함유 음료세 (Sugary Drinks Tax)	2018.6~	1온스 당 1센트, 2020년까지 유예
일리노이주 쿡 카운티(시카고 포함)	가당음료세 (Sweetened Beverage Tax)	2016.11~ 2017.12	1온스 당 1센트, 2017년 12월 폐지
메사추세츠주	설탕음료세 (Sugary Drink Tax)	2017.5~	1온스 당 설탕 19그램 미만 1센트, 20그램 이상 2센트 부과 검토 중
텍사스주	탄산음료세 (Soda Tax)	2011.3~	판매세(6.25%) 과세대상 포함 여부 검토 중
워싱턴주 워싱턴 DC	탄산음료세 (Soda Tax)	2018.11~	2018년 11월 주민 투표 예정
뉴멕시코주 산타페	설탕 첨가 음료세 (Sugar Sweetened Beverage Tax)	~2017.5	설탕 첨가 음료세 도입 부결
뉴욕주 뉴욕	설탕음료세 (Sugary Drink Tax)	~2015.10	도입 부결
애리조나주	설탕음료세 (Sugary-Drinks tax)	~2018.1	도입 부결
미시간주	탄산음료세 (Soda Tax)	~2017.10	도입 부결
하와이	설탕 첨가 음료세 (Sugar Sweetened Beverage Tax)	~2013.3	도입 부결
캐나다	설탕 첨가 음료세 (Sugar-Sweetened Beverage Tax)	2018.3~	검토 중

□ 유럽

- 현재 유럽연합(EU) 내 국가 중 정크푸드세 도입국은 10여 개국에 이룸
  - 가장 먼저 정크푸드세를 도입한 덴마크는 도입 1년 만에 일자리 감소, 산업 위축 등을 이유로 폐지하였음
  - 핀란드 역시 식품 업계의 반발로 설탕세 일부가 폐지되는 등 유럽 내에서도 설탕세 및 정크푸드세의 도입 및 유지에 대한 찬반이 대립하고 있음

<표 I -2> 유럽 주요지역별 규제 도입 현황

국가	세금명	적용기간	규제기준 및 기타 세부사항
덴마크	비만세 (Fat Tax)	2011.10 ~2012.11	포화지방 kg당 16크로네 부과, 현재 폐지
헝가리	포장 식품세 (Salty and Sugary Packaged Foods Tax)	2011.9.~	2011년 9월부터 청량음료·에너지음료, 설탕 및 소금이 많이 들어간 식품에 정크푸드세 부과
핀란드	설탕세 (Sugar Tax)	2012.7~	과자류 및 아이스크림, 탄산음료 : kg당 95유로센트 부과, 리터당 11유로센트 부과, 2017년부터 과자 및 아이스크림만 폐지
노르웨이	초콜릿 및 설탕 제품세 (Chocolate and Sugar Products Tax)	1922~ (2018.1 개정)	초콜릿 및 설탕이 함유된 제품 : kg 당 36.92크로네 부과
프랑스	설탕세(도입) 정크푸드, 소금세 (검토 중) (Sugar Tax)	2012.1~	캔 당 판매 금액의 1% 부과 설탕세에 더하여 패스트푸드와 같은 정크푸드, 염분이 지나치게 많은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
잉글랜드	설탕음료세(도입) 초콜릿세 (검토 중) (Sugary Drinks Tax)	2018.4~	100ml 당 설탕이 5g 함유된 음료 : 리터당 18펜스 부과 100ml 당 설탕이 8g 이상 함유된 음료 : 리터당 24펜스 부과 설탕세에 더하여 과자류에도 세금을 20% 부과하는 이른바 ‘초콜릿 세금’ 의 도입을 검토 중
아일랜드	설탕세 (Sugar Tax)	2018.4~	100ml 당 설탕 5g의 음료 : 리터당 20센트 부과 100ml 당 설탕 8g 이상의 음료 : 리터당 30센트 부과

□ 아시아

- 인도, 태국, 필리핀 등이 지방세 및 설탕세를 도입
  - 인도의 경우 다른 아시아 국가의 비만율이 낮은 수준이나 태국, 필리핀 등은 아세안 국가 중 비만율 1, 2위를 나타내는 국가로 비만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

- 이 외 대만 등의 국가에서도 설탕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, 세금 정책 외에도 다양한 비만 대책을 도입하여 해결책 모색에 노력 중임

〈표 I -3〉 아시아 주요지역별 정크푸드-설탕세 도입 현황

국가	세금명	적용기간	규제기준 및 기타 세부사항
인도	지방세 (Fat Tax)	2017.7~ (Kerala 2016.7~ 2017.7)	고과당 간식류, 탄산음료 등에 대해 통합간접세라는 명목으로 고율의 세율을 부과 인도 남부 케랄라(Kerala)주에서 패스트푸드에 약 14.5% 부과를 해왔으나 통합간접세 도입으로 폐지
태국	신(新)설탕음료세 (New Sugar Tax on Beverages)	2017.10~	음료수(당분 음료, 커피, 차)를 대상으로 신 소비세를 적용해 세율을 높임
필리핀	설탕 첨가 음료세 (Sugar-Sweetened Beverage Tax)	2018.1~	설탕과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음료에는 리터당 6필리핀 페소, 고과당 시럽을 사용한 음료는 12필리핀 페소의 세금이 부과
대만	고설탕세 (High-Sugar Diet Tax)	2014.7~	검토 중

#### □ 기타

- 비만율이 높으며 고칼로리 식품을 다량 섭취하는 지역에서 비만세(설탕세) 도입률이 높게 나타남
- 정크푸드 등 고칼로리 식품 섭취 비중이 높은 멕시코와 칠레, 아랍에미리트 등 남미국가를 중심으로 설탕세가 도입됨

〈표 I -4〉 기타 주요 국가별 정크푸드-설탕세 도입 현황

국가	세금명	적용기간	규제기준 및 기타 세부사항
멕시코	설탕세 (Sugar tax)	2014.1~	1리터당 1페소 부과
칠레	설탕세 (Sugar tax)	2014.10~	100ml 당 6.25 그램 또는 그 이상의 설탕을 함유한 음료에 대해 13%에서 18%로 세금을 인상
아랍에미리트	설탕세 (Sugary drink tax)	2017.10~	탄산음료 50%와 에너지음료에 100%의 소비세를 부과

## II. 글로벌 정크푸드 규제방안

### 1. 북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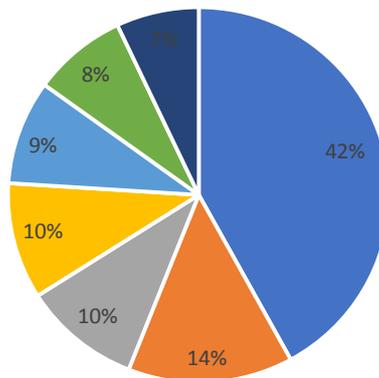
#### 1) 미국

##### 가. 규제배경

###### □ 미국의 패스트푸드 소비현황

- 2016년 리서치 기관 IBIS의 조사에 따르면, 미국 패스트푸드 시장 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은 햄버거로, 전체의 42%를 차지
  - 뒤이어 샌드위치(14%), 아시안 푸드(10%), 치킨(10%), 피자&파스타(9%), 멕시코(8%), 기타(7%)인 것으로 나타남

<표 II -1> 미국 패스트푸드 시장 음식별 점유율 추이(2016)



■ 버거 ■ 샌드위치 ■ 아시아 음식 ■ 치킨 ■ 피자 및 파스타 ■ 멕시코 ■ 기타

출처 : IBISWORLD([www.ibisworld.com](http://www.ibisworld.com))

- 스낵을 습관처럼 즐기는 미국인들의 꾸준한 스낵 수요와 소득의 증가로 지난 10년 간 미국 스낵 시장은 30% 이상 성장하였음
  - 2017년 미국의 스낵류 매출규모는 385억 달러(한화 약 44조 원)로 집계되었으며, 오는 2022년에는 402억 달러(한화 약 46조 원)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

□ 2017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, 미국 성인 10명 중 4명이 비만으로 분류됨

- 1999~2000년에는 30.5%였던 미국 성인의 비만율이 2015~2016년에는 39.6%로 증가하였으며, 2~19세 미성년자의 비만율 역시 13.9%에서 18.5%로 증가
- 비만인 외에 과체중으로 분류되는 인구는 전체의 70%를 초과하여, 보통 체중을 지닌 사람이 과체중 이상보다 소수의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임

<표 II -2> 미국 비만율 추이(1999-2016)

년도	성인	미성년
1999-2000	30.5%	13.9%
2001-2002	30.5%	15.4%
2003-2004	32.2%	17.1%
2005-2006	34.3%	15.4%
2007-2008	33.7%	16.8%
2009-2010	35.7%	16.9%
2011-2012	34.9%	16.9%
2013-2014	37.7%	17.2%
2015-2016	39.6%	18.5%

성인 : 20세 이상  
 아동 : 2~19 세  
 출처 : 미국질병예방센터(CDC)

□ 나바호 자치구는 미국 내에서도 정크푸드 구입 비중이 높은 식량 사막으로 간주되고 있음

- 해당 지역에서 가공된 정크 푸드는 과일 및 채소보다 더 저렴한 편으로, 이 곳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80% 이상이 소금, 지방 및 설탕 함유량이 높은 간식임
- 나바호 지역 주민들의 심장 질환, 비만 및 당뇨병 투병 비율이 높은 편으로, 특히 나바호 자치구의 당뇨병 발병률은 미국 평균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
- 이러한 상황에서 나바호 자치구는 2015년 4월부터 정크푸드세를 도입하여 미국 내에서 설탕 음료뿐만 아니라 정크푸드 전반에 세금을 부과한 첫 사례가 되었음
- 정크푸드세는 미국 내 정크 푸드의 정의 및 카테고리의 합의, 제조업체들의 이권과 정치적 환경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나바호 자치구 한 곳만 도입된 실정임
- 현재 미국 주요 주에 정크푸드세를 도입하기 위해 뉴욕 대학 등 여러 연구기관으로부터 정크푸드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

## 나. 규제현황

### □ 나바호 자치구(Navajo Nation), 정크푸드에 2%의 추가 판매세 부과

- 나바호 인디언 민족 대통령 벤 셸리(Ben Shelly)는 2014년 당시 건강한 식사법률(Healthy Dine Nation Act)을 통과시켜 모든 과일과 야채에 대한 5%의 판매세를 없앴
- 반면 패스트리, 칩, 소다, 디저트, 튀긴 음식 및 청량음료 등 정크푸드 식품에는 기존 5% 판매세에 2%의 정크푸드 세금을 추가 부과하여 총 7%의 세금이 부과됨

〈표 II -3〉 나바호 자치구의 無판매세 식품 및 정크푸드세 부과 식품

無판매세 식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선과일</li> <li>• 신선야채</li> <li>• 견과류</li> <li>• 너트 버터</li> <li>• 씨앗</li> <li>• 물</li> <li>• 옷나무 열매</li> <li>• 향신료 및 문화적으로 중요한 식품</li> </ul>
정크푸드 세금 부과 식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음료 : 소다, 스포츠 음료, 에너지 음료, 아이스 티, 아이스 커피, 과일주스, 야채주스, 맛을 낸 유제품 음료, 무알콜 음료 및 알코올 음료 등</li> <li>• 과자 : 사탕, 냉동 디저트, 패스트리, 케이크, 푸딩 등</li> <li>• 구운 칩, 튀긴 과자류 등</li> <li>• 통조림 육류 등 패스트 푸드</li> <li>• 소금, 설탕, 감미료와 같은 식품 첨가물</li> </ul>

출처 : Avalara(www.avalara.com)

- 나바호 주민 설문조사 결과, 나바호 정크푸드세 도입 효과에 대한 정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노던 애리조나 대학(Northern Arizona University)에서는 나바호족 역학센터 등과 협업하여 2017년 7월부터 1년간 나바호 정크푸드세 부과에 따른 효용성을 연구하였으며, 올해 2018년 7월 그 결과를 발표함<sup>3)</sup>
- 연구 내 설문조사 대상 과반수 이상이 정크푸드세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
  - 동 조사에서 나바호 주민 238명에게 정크푸드세의 효용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, 응답자의 71.4%가 동 정책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며, 나바호 주민에게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주었다고 답한 비율이 51.7%에 이름

3) 연구 결과는 건강한 식사 법률(Healthy Dine Nation Act) 정책 세수 결과 및 나바호 주민들에게 동 정책 효용성에 대해 질문하는 설문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, 질병 발병률과 같은 역학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음  
Navajo Epidemiology Center, Healthy Dine Nation Act “Junk Food Tax” Implementation Study, 2016-2018, www.nec.navajo-nsn.gov/Epi-Reports

- 또한 정크푸드세로 인해 건강한 식품을 구입하는 법을 교육받을 수 있었다고 답한 비율이 63.7%, 건강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정크푸드세를 지지한다는 비율이 72.8%로 높게 나타남

#### □ 버클리(Berkeley) 등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만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음

- 현재까지 미국의 약 30개 도시 및 주정부들이 설탕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서민 증세라는 비난 속에 모두 실패한 가운데, 일부 지역이 공공교육 지원 확대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세금 도입에 성공
  - 실제 설탕세가 도입되어 현재 운영 중인 지역은 버클리(Berkeley), 필라델피아(Philadelphia), 시애틀(Seattle), 볼더(Boulder) 등임
    - 음료 업계에서는 설탕세 도입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, 코카콜라와 펩시 등 음료업계는 설탕세 도입 논의 지역에서 입법 기구에 조직적인 로비활동을 펼치는 등 설탕세를 저지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을 보인 바 있음
- 설탕세를 도입한 캘리포니아(California)주 버클리는 입법 이후 무설탕 음료 소비가 증가 하였으며, 차와 우유, 무가당 과일 주스 같은 비과세 음료의 판매도 증가함
  - 입법 시기인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버클리시의 물 소비량은 63% 증가함
    - 소폭의 가격변동에도 크게 반응하는 저소득층 가구에서 경우 탄산음료 소비가 26% 감소
- 펜실베이니아(Pennsylvania)주 필라델피아(Philadelphia)는 설탕세 도입이 주민들의 음용 습관 개선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됨<sup>4)</sup>
  - 설탕세가 도입되기 전과 후 음료 습관에 관해 필라델피아의 900명의 남녀에게 설문을 실시한 결과, 세금 도입 전후 비교 시, 필라델피아 주민들이 매일 설탕 음료를 섭취한다고 답하는 비율이 40% 낮아졌으며,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비율 역시 64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  - 생수를 마시는 비율은 58% 이상 높아져 세금 도입 효과가 있음이 증명됨
- 버클리 외 캘리포니아주 3개 도시는 업계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도입이 유예되었음
  - 버클리 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설탕세를 도입하자 주내 알바니(Albany), 오클랜드(Oakland), 샌프란시스코(San Francisco) 등 다른 3개 도시가 이를 뒤따르려는 움직임을 보임
  - 그러나 곧바로 음료업계의 거센 반발과 조직적인 로비에 부딪혔으며, 지방 정부가 지방세를 인상하려 할 때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주민청원이 2017년 11월 6일 발의, 이를 코카콜라와 펩시 등이 지원하여 결국 3개 지역 내 설탕세 도입 추진이 2030년까지 유예됨

4) Times, Does Taxing Soda Actually Stop People from Drinking It?, 2018.4.12.  
[www.yahoo.com/news/does-taxing-soda-actually-stop-144144145.html](http://www.yahoo.com/news/does-taxing-soda-actually-stop-144144145.html)

- 일리노이(Illinois)주 쿡카운티(Cook County)는 설탕세 정책 도입 2달 만에 백지화 됨
  - 일리노이주의 설탕세 도입은 설탕 및 감미료가 함유된 음료에 온스 당 1센트 (한화 약 10원)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으나, 시민과 업계의 반대로 설탕세 시행은 백지화됨
  - 시카고 언론은 쿡 카운티 이사회 민주·공화 양당 위원들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 설탕세를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보도했으며, 폐지 법안을 표결에 부쳐 2017년 12월 1일 자로 설탕세를 폐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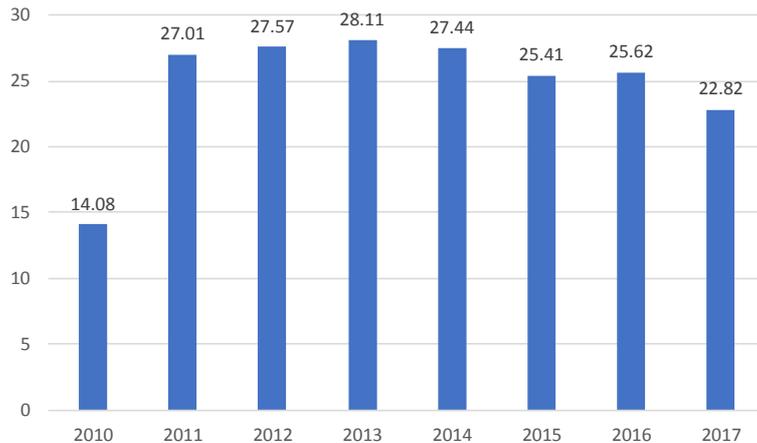
#### 다. 업계 대응동향

□ 건강한 음식에 대한 소비가 늘면서, 맥도날드의 경우 2012년 이후 지속적인 판매 부진에 직면하며 점유율 및 매출이 하락하는 추세임

- 맥도날드의 매출액은 2013년 281억 달러(한화 약 31조 7,642억 원)로 정점을 이룬 이후, 2017년까지 지속적인 매출 하락세를 나타냄
  - 2017년에는 228억 달러(한화 약 25조 7,731억 원) 규모로 약 50억 달러(한화 약 5조 6,520억 원) 이상의 매출 감소세를 나타냄

<그림 II -1> 맥도날드 매출액 추이

(단위 : 10억 달러)



출처 : Statista(www.statista.com)

-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 중 2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서브웨이 역시 매출 하락으로 2018년 500개 매장을 폐쇄할 계획임
  - 정크푸드 기피 트렌드, 지나친 점포 확장 등으로 서브웨이의 매출은 수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

□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위기 타파를 위해 건강을 모토로 한 메뉴를 앞 다투어 출시하고 있음

- 기존 고칼로리의 햄버거 위주의 메뉴만으로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미국 패스트푸드 시장에서도 건강에 대한 니즈가 강해지면서, 많은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이 친(親)건강 메뉴를 보강하는 추세임
  - 패스트푸드 시장 점유율 1위 맥도날드는 다양한 종류의 샐러드 메뉴, 저칼로리 메뉴를 추가하고 있음
  - 또한 아침 메뉴인 맥머핀의 마가린을 버터로 교체했으며, 무항생제 닭을 사용하고, 케이지 프리 달걀(닭장 안에 가두지 않고 키운 닭이 생산한 달걀)로 교체하겠다고 밝힘

□ 미국 음료 시장 내 저칼로리, 저설탕 음료 잇따라 출시

- 탄산수, 100% 과일 주스 등의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설탕이 포함된 탄산음료의 시장 내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으며, 이에 코카콜라는 새로운 브랜드의 탄산수를 출시하는 등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음
  - 2018년 코카콜라사는 레몬, 자몽, 체리 등 다양한 맛의 다이어트 코크를 신제품으로 출시했는데, 아스파탐과 아세숄팜칼륨의 혼합물로 단 맛을 내어 칼로리가 낮고 다양한 과즙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임
  - 펩시코사는 2018년 2% 미만의 설탕함유량으로 한 병에 55칼로리에 불과한 게토레이 G2를 출시함

<그림 II -2> 미국에서 유통되는 저칼로리/저설탕 음료

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조사 : 코카콜라</li> <li>· 제품명 : 다이어트 코크 4가지 맛 (Diet Coke 4 Flavours)</li> <li>· 영양정보 : 에너지 0.3kcal, 설탕함량 0g</li> <li>· 제품중량 : 310ml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조사 : 펩시코</li> <li>· 제품명 : Gatorade G2</li> <li>· 영양정보 : 에너지 30kcal, 탄수화물 7g</li> <li>· 제품중량 : 591ml</li> </ul>

출처 : Coca-Cola(www.coca-colacompany.com), PepsiCo(www.pepsico.com)

## 2) 캐나다

### 가. 규제 논의 배경

□ 시장조사 업체인 NPD Group의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은 2017년 소비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산

- 2017년 캐나다 내 팀홀튼이나 맥도날드 등의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들은 소비자 수가 1%가량 늘어날 것이며, 반면 풀 서비스 레스토랑의 소비자 수는 2%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됨
- 캐나다 패스트 서비스 레스토랑들은 메뉴를 획기적으로 다변화하며 소비자 수가 증가 추세로 2016년 캐나다 레스토랑 분야 총 판매량의 51%를 차지
- 반면, 2008년 경기 침체 이전에는 50%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던 풀 서비스 레스토랑들은 2016년 기준 전체의 42%만을 차지하여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의해 타격을 받고 있음
- 최근 캐나다 소비자들은 풀 서비스 레스토랑 대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옵션들을 찾으며, 아침 및 브런치를 패스트 서비스 레스토랑에서 해결하는 트렌드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

□ 2007년 이후 캐나다의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

-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에 따르면, 캐나다의 비만율은 29.4%로 아메리카 대륙 내 OECD 회원국 중 미국, 멕시코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임
- 캐나다 성인 남성의 비만율은 29.5%, 성인 여성의 비만율은 29.3%를 기록하여 남녀 모두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

<표 II -6> 캐나다 비만율 추이

2007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	2016
24.1%	24.7%	25.2%	25.8%	26.4%	27.0%	27.6%	28.2%	28.8%	29.5%
24.6%	25.2%	25.7%	26.2%	26.7%	27.2%	27.7%	28.3%	28.8%	29.3%

\* 출처 : OECD(www.oecd.org)

### 나. 규제 논의 현황

□ 캐나다 재무부는 2015년부터 설탕세 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

- 캐나다에서는 비만 대책으로 각급 보건 기구들이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으며, 캐나다 심장재단의 경우 100ml 당 5센트(한화 약 50원)의 설탕세를 매길 것을 제안하였음

- 앞서 캐나다 심장재단은 “탄산음료가 각종 만성 질병과 비만의 심각한 원인이며,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에서 탄산음료 소비가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”고 주장한 바 있음
- 캐나다 상원 재무위원회 역시 지난 2016년 3월 보고서를 통해 비만 대책을 위해 설탕세 시행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

□ 캐나다 정부는 2018~2019년 내 설탕세 도입 여부를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됨

#### 다. 업계 대응동향

□ 캐나다 음료협회는 설탕세 도입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, 제과 및 음료업계는 시장의 트렌드에 맞추어 저칼로리, 저설탕 제품을 출시하는 추세임

- 캐나다 음료협회는 설탕세가 탄산음료 소비 억제 및 비만 방지에 효과가 없고 저소득층에 부담만 안기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
- 그러나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헤일로탑(Halo Top Ice)사는 2018년 9월 캐나다에서 호박파이 맛의 저칼로리 아이스크림을 출시하여 시장 내 트렌드에 발맞춤
  - 해당 제품은 1회 섭취량 기준 설탕 8g 및 단백질 5g이 함유되어 있으며 총 열량은 100kcal인 것이 특징임
- 벤앤제리(Ben&Jerry's)사는 이미 2017년 7월 캐나다에서 저열량 아이스크림을 선보인 바 있음
  - 쿠키캐러멜, 바닐라, 초콜릿 3가지 맛으로 출시되는 제품으로 설탕과 지방을 기존 제품 대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며, 소형 컵 기준 150kcal, 파인트 컵 기준 560kcal의 열량을 보유함

<그림 II -3> 캐나다에서 유통되는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제품

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조사 : 헤일로탑 아이스크림(Halo Top Ice)</li> <li>· 제품명 : 호박파이맛 아이스크림 (pumpkin pie ice cream)</li> <li>· 영양정보 : 0.5 컵 당 90칼로리</li> <li>· 제품중량 : 320g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조사 : 벤앤제리(Ben&amp;Jerry's)</li> <li>· 제품명 : 무포리아 라이트 아이스크림 (Moo-phoria light ice cream)</li> <li>· 영양정보 : 1인분 당 150 칼로리</li> <li>· 제품중량 : 16 oz</li> </ul>

출처 : Canada Walmart(www.walmart.ca/en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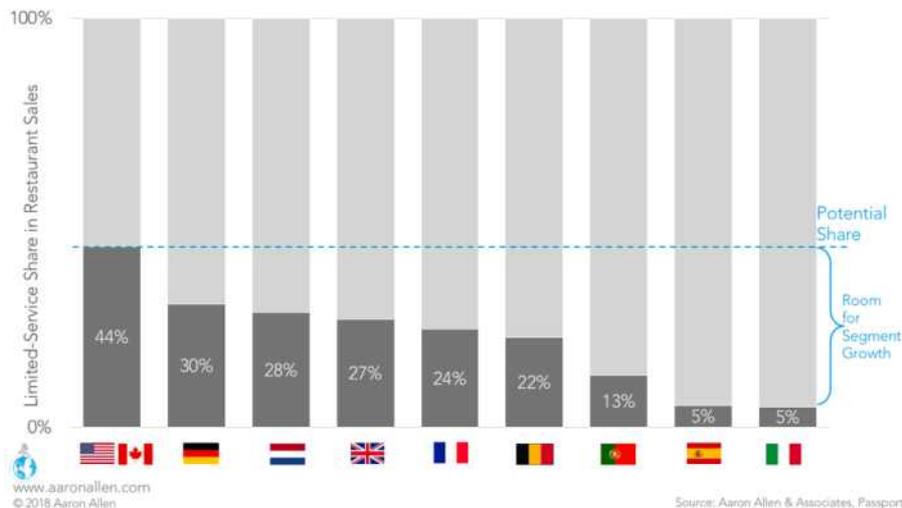
## 2. 유럽

### 가. 규제배경

□ 유럽 주요국의 외식산업 중 패스트푸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19%로, 향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
- 시장조사 기관 Aaronallen에 따르면, 전체 외식 산업에서 패스트푸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독일과 네덜란드, 영국으로, 각각 전체의 30%, 28%, 27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<sup>5)</sup>
  - 뒤이어 프랑스, 벨기에의 패스트푸드 산업 점유율이 각각 24%와 22%로 전체 외식산업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됨
  - 포르투갈, 스페인, 이탈리아의 경우 13%, 5%, 5%로 패스트푸드 산업 비중이 크게 높지 않은 편임
- Aaronallen은 상위 언급된 서유럽 8개국의 패스트푸드 시장 점유율이 2017년 이후 향후 3년 간 103억 달러(한화 약 11조 6,441억 원)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음

<표 II -7> 2017년 유럽 주요국 외식산업 내 패스트푸드 산업 점유율



주 : 왼쪽부터 미국, 캐나다, 독일, 네덜란드, 영국, 프랑스, 벨기에, 포르투갈, 스페인, 이탈리아  
출처 : Aaron Allen(www.aaronallen.com)

□ 유럽 주요국의 패스트푸드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

- 프랑스에서 햄버거를 포함한 패스트푸드는 매우 일상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는데, 패스트푸드의 편리성 때문에 퀵 서비스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

5) 8개 서유럽 국가(네덜란드, 독일, 벨기에, 스페인, 영국, 이탈리아, 포르투갈, 프랑스) 기준

- 영국의 경우 식당 내 식사의 비율은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피자, 중국 음식을 중심으로 방문포장 및 배달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
  - 다수의 영국 직장인은 점심을 책상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초간편 점식식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패스트푸드, 테이크아웃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
  - 영국 언론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내 패스트푸드를 포함한 테이크아웃 음식점의 총 점포수가 2014년 이후 3년 동안 4,000점포로 기존 점포 대비 8% 증가한 것으로 집계
  - 2016년 영국에서 테이크아웃 음식점 개수는 5만 6,600여 점포로 전국 모든 식품 매장 중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, 특히 패스트푸드 음식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
- 미국 농림부(USDA)에 따르면, 네덜란드의 패스트푸드 시장 판매액은 2011년 약 32억 8,700만 달러에서 2016년 36억 9,300만 달러로 연평균 2.4% 성장함
- 스페인 시장조사기관 DBK에 따르면 스페인 패스트푸드 시장은 2016년 전년 대비 7.9% 성장한 19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2017년 이후 3년간 연평균 7~8%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

**□ 유럽 소비자의 식습관 변화와 운동량 부족 등 생활습관에 기인한 과체중 및 비만 인구 증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**

- 유럽 내 비만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으로,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과체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, 비만인구의 비중은 27.8%인 것으로 나타남
  - 영국은 현재 70%와 59%인 남녀의 비만 및 과체중 비율이 2030년에는 74%와 64%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
-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,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과체중 및 비만 인구가 2030년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**나. 규제현황**

**□ 2011년 덴마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만세(fat tax)<sup>6)</sup>를 부과함**

- 포화지방 함유량이 2.3%를 초과하는 버터, 우유, 치즈, 피자, 고기, 기름, 가공식품에 대해 포화지방 1kg당 16크로네(한화 약 3,400원)의 세금을 추가 부과하기로 함
  - 비만세 도입으로 버터는 과거보다 평균 30%, 과자류는 8% 비싸짐

6) 정크푸드세와 유사한 개념으로,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, 음료 또는 과체중인 개인에 부과되는 세금. 비만을 유발하는 식단을 억제하고 비만에 의한 경제적 비용을 상쇄하는 것을 목표로 함

- 세금 도입 후 처음 3개월 동안 버터, 마가린 및 식용유의 판매가 10~15%의 감소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나, 이는 비만세 도입에 대비해 소비자들이 관련 식품을 미리 구입해 비축해두었기 때문에 소비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결과인 것으로 나타남
- 결국 마가린 및 식용유 소비는 도입된 해 12월 경 정책 도입 전 수준으로 소비가 복귀하였으며, 비만세 도입 이후 덴마크 소비자들은 가격이 더 저렴한 이웃 나라에 가서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양상을 보여 결국 덴마크 정부는 2012년 비만세를 폐지하였음
- 이후 덴마크는 2003년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유지류 100g 당 2g 이내로 제한하는 법률을 도입
  - 해당 법률의 도입으로 덴마크에서는 “트랜스 지방이 없다”고 표시된 기름은 트랜스 지방을 지방 100g 당 1g 이상을 함유할 수 없게 됨
  - 또한 다양한 원재료 및 성분을 포함하는 식품의 트랜스 지방 함유량도 2g 이내로 제한되었으며,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 및 잠재적 형사 처벌 제도를 수립

□ 헝가리는 2011년 9월부터 ‘포장 식품세’를 부과하여 설탕과 소금, 카페인 함량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일반 소비자의 건강보호 목적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로 함

- 해당 규제는 도입 초기 ‘햄버거세’, ‘튀김-과자세’ 등 두 차례의 명칭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‘포장 식품세’로 이름이 변경됨
- 헝가리에서 설탕세를 부과하는 주요 품목으로는, 소프트 드링크류에 100ml 당 15포린트(한화 약 60원), 건강 드링크에 카페인 함유량이 100ml당 20mg 이상일 경우 리터당 300포린트(한화 약 1,200원), 봉지 사탕류의 경우 250포린트(한화 약 1,000원/kg, 설탕함유량이 100g당 25g을 초과할 경우)를 부과

<표 II -8> 헝가리 비만세 부과대상 및 세율

품목	부과대상 및 세율
소프트드링크	10포린트(한화 약 40원)/리터 부과, 설탕 함유량이 100ml 당 5g을 초과할 경우 2012년 1월부터 15포린트(한화 약 60원)를 부과
건강 드링크	카페인 함유량이 100ml 당 20mg 이상일 경우 리터당 300포린트(한화 약 1,200원) 부과
봉지 사탕류 (Packaged sweets)	200포린트(한화 약 800원)/kg 부과, 250포린트(한화 약 1,000원)/kg(설탕함유량이 100g당 25g을 초과할 경우 2012년부터 부과)
아이스크림	100포린트(한화 약 400원)/kg(설탕함유량이 5g/100g 이상)
스낵(짠 맛)	400포린트(한화 약 1,600원)/kg(소금 함유량이 1g/100g 이상)
식용 파우더	500포린트(한화 약 2,000원)/kg (수프, 소스 등과 같은 제품의 염분 함유량이 5g/100g 이상일 경우)

출처 : 헝가리 국세청(en.nav.gov.hu)

- 집권 여당인 피데스(Fidesz)는 당초 법안을 만들면서 헝가리인들이 즐겨먹는 소시지와 돼지기름이 포함된 식품류에도 세금을 부과하려 했으나 식품업계의 반발로 제외되었음
- 헝가리 소비자는 포장 식품세의 영향을 받아 가격에 변동이 생긴 제품을 저렴한 제품으로 대체하여 소비하는 양상을 보였으며, 식습관 개선에는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<sup>7)</sup>
- 해당 규제에 대해 ‘헝가리 가정식 자체가 짜고 달기 때문에 포장 식품세 도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’는 의견도 존재함

□ 유럽 내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간식 및 음료 제품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음

- 핀란드는 2011년부터 간식류에 설탕세를 부과하여, 과자 및 아이스크림, 청량음료에 kg당 95유로센트(한화 약 1,235원), 제품 리터당 11유로센트(한화 약 146원)의 추가 세금을 징수함
- 그러나 핀란드 식품 업계가 과자류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유럽 집행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여 2017년 1월부터 과자류를 대상으로 한 설탕세 적용이 폐지되었음
  - 본 세금이 국내 제품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 과자가 오히려 이득을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임
- 한편, 2014년 1월 1일 이후 설탕 함유량 0.5% 이상인 청량음료 및 주스 제품의 경우 22유로센트(한화 약 292원)의 세금이 부과되어 이전보다 두 배 높은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됨
  - 감미료를 기반으로 한 청량음료 및 물에 부과되는 세금은 11유로센트(한화 약 146원)로 이전 수준을 유지함

<표 II -9> 핀란드 설탕세 부과세율

품목	부과세율
설탕과 청량음료 및 주스	22유로센트
감미료 기반 청량음료 및 물	11유로센트

출처 : Nanny State Index([nannystateindex.org/finland-2017/](http://nannystateindex.org/finland-2017/))

- 노르웨이 정부는 1922년부터 초콜릿과 설탕 제품에 대해 특별 소비세(luxury tax) 명목으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 왔으며, 2018년 증세(增稅)함
  - 2018년 초콜릿과 청량음료에 전년대비 각각 83%, 42%가 인상된 세금을 부과함
  - 노르웨이의 설탕세는 설탕이나 감미료가 포함되지 않은 초콜릿과 제과류에도 부과되며, 품목별 세율은 다음과 같음

7) 뉴욕타임즈, Hungary Tries a Dash of Taxes to Promote Healthier Eating Habits, 2013.3.2.  
[www.nytimes.com/2013/03/03/world/europe/hungary-experiments-with-food-tax-to-coax-healthier-habits.html](http://www.nytimes.com/2013/03/03/world/europe/hungary-experiments-with-food-tax-to-coax-healthier-habits.html)

〈표 II -10〉 노르웨이 설탕세 부과대상 및 세율

품목	부과대상 및 세율
설탕(그레뉴당, 아이싱 슈거, 캔디, 정제설탕, 펄 슈거)	kg 당 36.92크로네
초콜릿 및 설탕이 함유된 제과류	kg 당 36.92크로네
탄산음료	리터 당 2.81크로네
무알콜 음료 농축액	리터당 28.91크로네
농축액(시럽) 과일, 딸기 또는 채소를 기제로 한 시럽	리터당 10.32크로네

출처 : 노르웨이 국세청(www.skatteetaten.no)

- 노르웨이에서는 2018년 설탕세가 증가하면서 관련 제품 매출이 정체 혹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<sup>8)</sup>
  - 설탕세 부과 이후, 노르웨이 내 설탕 음료 매출은 11% 감소한 반면, 온라인 상점과 국경 상점에서는 이웃국인 스웨덴의 청량음료 수입이 늘고 있음
  - 지난 1분기 동안 노르웨이에서 국경 쇼핑은 16%가 증가함
- 2011년부터 프랑스는 탄산음료 한 캔에 1%의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으며, 설탕세 도입으로 코카콜라와 환타를 비롯한 설탕음료 가격은 리터당 3~6유로센트(한화 약 39원~78원)가 인상되었음
  - 칼로리가 제로인 다이어트 음료는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
  - 프랑스에서는 설탕세로 인해 주요 청량음료 기업들이 설탕 함량을 줄이거나 용량 자체를 줄인 것으로 나타나 설탕세 도입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
- 영국은 2018년 4월부터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기 시작
  - 잉글랜드는 100ml 당 설탕이 5g 함유된 음료에 대해선 리터당 18펜스(한화 약 300원), 100ml 당 설탕이 8g 이상 함유된 음료에는 리터당 24펜스(한화 약 400원)를 부과함
  - 설탕이 가미되지 않은 천연 주스나 우유가 많이 포함돼 칼슘 공급원이 되는 음료, 무설탕 감미료 음료는 제외
  - 아일랜드에서는 100ml 당 설탕 5g의 음료는 1리터당 20유로센트(한화 약 260원)로 100ml 당 설탕 8g 이상의 음료는 1리터당 30유로센트(한화 약 390원) 부과
  - 영국 내 청량음료 소비가 감소하고 저설탕 음료 소비가 증가하여 설탕세 도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
  - 시장조사기관인 IRI에 따르면 설탕세 도입 이전에 비해 영국의 저설탕 음료의 판매가 7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8) KBS NEWS, 노르웨이, 설탕세 부과로 매출 감소...음료업계 타격, 2018.5.8  
[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3646028&ref=Z](http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3646028&ref=Z)

□ 이 외에도 정크푸드세, 소금세, 등 다양한 국가에서 정크푸드 소비 억제를 위한 세금부과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

- 2016년 프랑스 재무부는 설탕세 외 정크푸드세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이는 업계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,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
- 2017년 프랑스는 무분별한 청량음료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일부 가격을 받거나 무료로 청량음료를 무제한 리필해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였음
- 또한 2018년부터 프랑스 의회는 짠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‘소금세’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
  - 2018년 9월 프랑스 의회는 염분이 지나치게 많은 빵, 쿠키, 통조림 등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함
- 영국의 일부 학계에서는 초콜릿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
  - 옥스퍼드대학 등이 실행한 연구에 의하면 과자 및 케이크, 비스킷 등 달콤한 간식의 가격이 기존에 비해 10% 인상될 경우 이에 대한 소비가 약 7%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
  - 이와 관련해 사회 운동가들은 청량음료뿐만 아니라 과자류에도 세금을 20% 부과하는 이른바 ‘초콜릿세’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
  - 실제로 영국 공중보건국은 2020년까지 비스킷, 케이크, 푸딩, 아이스크림 등 9개 품목의 달콤한 음식류에 포함된 설탕 함량을 20% 감소하려는 목표를 추진 중에 있음

다. 업계 대응동향

□ 유럽 내 대다수의 식품 제조기업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함유량을 줄인 ‘저지방’, ‘저설탕’ 등의 제품을 출시하여 시장 내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

- 헝가리의 다양한 기업들은 지방, 소금, 설탕 함유량을 줄인 제품을 출시하고 있음
  - 헝가리에서 가장 큰 낙농 회사인 토날테제이(Tolnatej)社は 다양한 저지방 치즈 출시
    - 톨나이(Tolnai low-fat) 저 지방 치즈는 슬라이스 형태 및 덩어리 형태 두 가지로 출시되며, 100g 당 9.7g의 지방이 포함되어 있음
  - 헝가리에서 30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제과업체인 데트키 비스킷(Detki Keksz Édesipari)社は 소금 함유량을 줄인 크래커 출시하였는데 크래커 100g당 0.97g의 소금이 포함되어 있으며, 포장 내에 소금 함유량을 낮추었음을 표시
  - 헝가리의 제과업체 토르타(Torta)社は 저설탕, 무설탕 케이크를 만들어 판매함
    - 해당 기업은 비만세, 건강 트렌드 등에 맞추어 설탕이나 당류, 탄수화물이 적게 포함하고 과당이나 에리트리톨이 함유된 다양한 종류의 케이크를 만들어 비만, 당뇨를 피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

<그림 II -4> 헝가리에서 유통되는 저칼로리/저염/저설탕 식품

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조사 : 토날테제이(Tolnatej)</li> <li>· 제품명 : 톨나이 로우 팻 치즈 (Tolnai low-fat Cheese)</li> <li>· 영양정보 : 제품당 지방-최대 25 %</li> <li>· 제품중량 : 125g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조사 : 데트키 비스킷 (Detki Kecs Édesipari)</li> <li>· 제품명 : 킹 비스킷(King Kecs) 치즈, 파프리카 맛</li> <li>· 영양정보 : 100g 당 456kcal, 소금-0.94g</li> <li>· 제품가격 : 105포린트</li> <li>· 제품중량 : 100g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조사 : 토르타(Torta)</li> <li>· 제품명 : 저설탕 초콜릿과 체리 케이크(Low sugar Chocolate and sour cherry Cake)</li> <li>· 영양정보 : 유당 프리, 글루텐 프리, 저설탕</li> <li>· 제품중량 : 홀케이크 1판(중량 정보없음)</li> </ul>

출처 : Tolnatej(www.tolle.hu), Zsu-An Expressz(www.zsuanexpressz.hu), Torta(torta.hu)

- 음료 제조기업인 코카콜라와 엑세스 그라니니(Eckes-Granini)사는 핀란드에서 저설탕 음료를 출시하여 시장 내 변화에 대응함
  - 코카콜라는 2018년 차, 과일 주스, 허브 등 다양한 천연 재료가 혼합된 차 음료 브랜드인 ‘푸지티(FUZE Tea)’를 출시하였으며, 감미료로 단맛을 내어 칼로리가 낮은 점을 장점으로 내세움
  - 엑세스 그라니니(Eckes-Granini)는 다양한 저칼로리, 천연 감미료 주스 제품을 출시하였는데, 말리 주시(Marli Juissi), 말리 바이탈(Marli Vital), 말리 웰빙(Marli Wellbeing) 등 브랜드를 통해 무설탕 주스, 천연 스테비아 가당 과즙 음료, 저칼로리(12 kcal / 100 ml) 음료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음

<그림 II -5> 핀란드에서 유통되는 저칼로리/저설탕 음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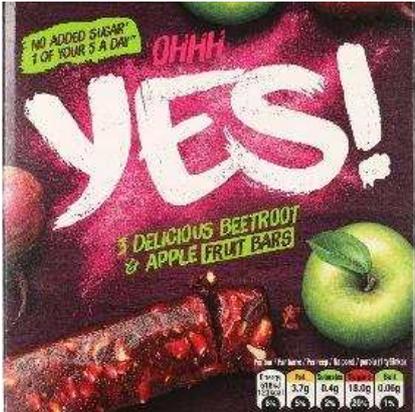
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조사 : 코카콜라</li> <li>· 제품명 : 후지티(FUZE Tea)</li> <li>· 영양정보 : 1인분 당 60칼로리, 지방-0g, 탄수화물 및 설탕-15g</li> <li>· 제품중량 : 0.4리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조사 : 엑세스 그라니니 (Eckes-Granini)</li> <li>· 제품명 : 말리 바이탈(Marli Vital) 주스</li> <li>· 영양정보 : 100ml 당 38칼로리, 탄수화물 및 설탕-9.3g</li> <li>· 제품중량 : 1리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조사 : 엑세스 그라니니 (Eckes-Granini)</li> <li>· 제품명 : 말리 웰빙(Marli Wellbeing) 주스</li> <li>· 영양정보 : 11칼로리</li> <li>· 제품중량 : 1리터</li> </ul>

출처 : Coca-Cola(www.coca-cola.fi), Eckes-Granini(www.eckes-granini.com)

- 노르웨이, 프랑스, 영국 등의 음료 제조기업 역시 설탕 함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 하고 있음
  - 설탕세로 인해 청량음료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<sup>9)</sup>를 보이고 친건강 트렌드가 대세를 이루면서 코카콜라 등은 노르웨이 시장에 설탕을 줄인 청량음료를 출시
    - 2017년 코카콜라는 무설탕 오렌지 과즙음료 어지우텐서커(Urge Uten Sukker)를 통해 청량음료는 기피하는 소비자에 대응하는 제품을 내놓은 바 있음
  - 설탕세 도입 이후 프랑스 코카콜라사의 스프라이트(Sprite), 환타(Fanta), 펩시코사의 세븐업(Seven Up), 립톤 아이스티(Lipton Ice Tea)와 같은 인기 브랜드들이 모두 설탕 함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남
    - 자이언츠 슈웨프스(Schweppes)와 립톤 아이스티(Lipton Ice Tea)의 음료는 설탕을 기존 대비 40% 줄였으며, 세븐 업(Seven Up)과 환타(Fanta)는 설탕을 30% 줄임
- 영국 내 음료기업들은 잇달아 저(무)설탕 음료를 출시하는 추세임
  - 영국 정부에 따르면 이미 절반가량의 음료 제조업체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, 코카콜라는 영국에서 판매하는 환타 및 스프라이트의 설탕 함량을 100ml 기준으로 6.9g, 6.6g에서 4.6g, 4.5g으로 각각 줄임
    - 스코트랜드 기업 에이지바(A.G. Barr)사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사용하여 에너지 음료 아이언 브루(Irn bru)의 설탕 함량을 100ml 기준 10.3g에서 4.7g으로 줄임
    - 펩시코는 세븐업의 설탕 함량을 100ml 기준 10g에서 7g으로 낮추었으며, 대형 유통업체인 테스코 등도 자체 브랜드 제품의 설탕 함유량 줄이기에 나섬
- 음료 외에도 요구르트, 스낵바 등 간식류 제품의 설탕 함유량이 줄어들거나 무설탕 제품이 출시되는 추세임
  - 뮐러라이트 프루토폴리스(Müllerlight Fruitopolis)는 과일이 든 그리스식 요구르트로 딸기, 체리 및 복숭아, 패션 프루트의 세 가지 맛으로 출시되며 무설탕 제품임
    - 2018년 유제품 거대 기업인 뮐러(Müller)사는 무설탕 그리스 요구르트 뮐러라이트 프루토폴리스(Müllerlight Fruitopolis)를 출시함
    - 2018년 9월 네슬레(Nestle)는 저설탕 무글루텐 스낵바를 출시하였음
      - 본 스낵바는 과일, 야채 및 견과류 조합으로 인공 감미료, 향료, 색소 또는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, 설탕함유량이 5g인 저설탕 제품임

9) Euromonitor, Soft Drinks in Norway, 2018.3  
[www.euromonitor.com/soft-drinks-in-norway/report](http://www.euromonitor.com/soft-drinks-in-norway/report)

<그림 II -6> 영국에서 유통되는 저칼로리/저설탕 식품

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조사 : 뮐러(Müller)</li> <li>· 제품명 : 무설탕 프루토폴리스 요구르트 (0 added sugar Müllerlight Fruitopolis)</li> <li>· 영양정보 : 130g 당 90칼로리, 지방-0.1g, 탄수화물-10.8g, 단백질-4.8g</li> <li>· 제품중량 : 130g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조사 : 네슬레(Nestle)</li> <li>· 제품명 : 예스(Yes!) 스낵바</li> <li>· 영양정보 : 32g당 163 칼로리, 지방-10.6g, 탄수화물-14.6g, 단백질-1.8g</li> <li>· 제품중량 : 32g</li> </ul>

출처: Morrisons(groceries.morrisons.com), Nestle professional(www..co.uk)

□ 트랜스 지방 함유량을 낮추기 위해 제빵류 제조 시 제조공법을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음

- 특히 덴마크의 전통 과자류 및 제빵류는 식감을 위해 트랜스 지방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음
  - 2003년 이후 트랜스 지방의 함유량을 제재하는 규제가 생겨남에 따라 업계에서는 제조공법을 변동하는 움직임을 보임
  - 제빵류 제조 시 세심한 온도 조절, 트랜스 지방을 줄인 마가린 사용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함

□ 친환경 브랜드 런칭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고 있음

- 유럽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에 대한 열기가 고조됨에 따라, 노르웨이에서도 관련 제품을 출시하는 경향이 나타남
  - 오클라(Orkla)社は 건강하고 자연친화적이며, 윤리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‘브랜드빌(Brand bill)’을 출시함
    - 브랜드빌 제품군에는 노르웨이 현지산 원재료를 사용하고, 코코아를 늘리고 설탕이 적게 든 초콜릿 등이 포함됨

□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방법도 함께 추진되고 있음

- 덴마크의 제과업체 톰스(Toms)사는 kg당 5g 미만의 설탕 함유 제품에 대해 15%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도 함
- 프랑스 코카콜라사는 일부 제품에 대해 설탕 함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변경하지 않고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탕세에 대응함
  - 프랑스 2018년 코카콜라는 1.75리터짜리 음료를 1.5리터로 줄이면서 가격을 20 펜스(한화 약 340원)를 인상하였음

□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제조시설을 국외로 이전하는 움직임도 보임

- 덴마크 제과업체 톰스(Toms)사는 높은 비만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제조시설을 국외로 이전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함
  - 톰스사는 덴마크 시장과 수출을 위해 초콜릿 제품 포장을 위해 폴란드 레즈노에 1만 평방미터 규모의 시설을 임대 계약함
  - 이는 덴마크의 정크푸드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여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폴란드에 생산기지를 임대한 결과인 것으로 평가됨

### 3. 아시아

#### 가. 규제배경

-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인도, 태국, 필리핀, 대만 등 국가는 비만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인구의 비만을 억제할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
  - 인도의 비만인구는 세계 3위 수준으로 비만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, 특히 도시 지역 인구의 당뇨병, 비만 등 식습관 관련 질병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
    - 케랄라(Kerala)주는 인도에서 비만율이 2번째로 높은 주로 당뇨병과 비만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, 이에 주 정부는 주내 비만 인구 감소를 위해 비만세 도입을 결정한 바 있음
  -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태국은 아세안 국가 중 인구의 비만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, 2000년 이후로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
    - 태국에서 체질량 지수<sup>10)</sup>가 25 이상인 과체중은 1976년에 남성 9.5%, 여성의 12.1% 수준으로 낮았으나, 2016년 조사에서는 남성 29.2%, 여성의 35.6%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    - 체질량 지수가 30이상인 비만은 1976년에 남성 0.4%, 여성 1.4%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남성의 7%, 여성의 12.7% 수준으로 증가함
  - 아세안 국가 중 비만율 2위에 속하는 필리핀의 경우 인구의 비만율 및 과체중율이 각각 5.1%, 23.6%로 집계됨<sup>11)</sup>
    - 필리핀은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 기준 전체 보건 지출의 4~8 %에 해당하는 5~10억 달러(한화 약 5,577억 원~1조 1,355억 원)를 투입한 것으로 추산됨
  - 대만 성인의 44%는 과체중으로, 동아시아 국가들 중 비만율이 높은 국가로 꼽힘
    - 2017년 대만 행정부의 최신 영양 및 건강 조사(Nutrition and Health Survey)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만의 비만 인구는 44.5%에 이룸
    - 대만의 성인 중 44%는 과체중이거나 비만으로, 이웃 아시아 국가인 일본,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, 한국, 태국, 중국 등에 비해 비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

10) 체질량 지수(BMI)란 체중(kg)을 키 제곱(단위 · m<sup>2</sup>)으로 나누어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측정법을 말함. WHO(세계 보건기구)에서는 체질량 지수 25.0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함(성인 기준)

11) 아세안 식품연구회 ARoFIIN,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(EIU)

나. 규제현황

□ 2017년 인도는 고과당 간식류와 탄산음료 등에 고율의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소비 억제를 꾀하고 있음

- 2017년 7월부터 모디 정부는 지역마다 다른 부가가치세를 전국적으로 통일해, 모든 품목을 5%, 12%, 18%, 28%의 4가지 범주로 나누어 통합간접세(GST)를 부과하기 시작함
- 그 중 당분이나 지방 함유량이 많은 품목의 경우 신선식품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되어 소비량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, 인도의 통합 간접세 도입에 따른 비만을 감소 및 관련품목 소비 감소 등의 조사 결과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음

<표 II -11> 인도 식품별 GST 세율

GST 세율	품목
0%	주트(jute), 신선육, 생선류, 닭, 달걀, 우유, 버터, 밀크, 커드, 천연 꿀, 생과일, 채소, 밀가루, 병아리콩(besan), 빵, 소금
5%	1000루피 이하의 진공포장 된 식품(피쉬필렛), 커피, 차, 향신료
12%	1000루피 이상의 의류, 냉동육 식품, 버터, 치즈, 기(ghee), 포장 견과일 식품, 동물성지방, 소시지, 과일주스
18%	모든 종류의 비스킷, 향료 첨가된 정제설탕, 파스타, 콘플레이크, 패스트리 및 케이크, 보존된 야채, 잼, 소스, 수프, 아이스크림, 인스턴트 푸드 믹스, 미네랄워터
28%	검, 당밀(molasses), 코코아 무첨가 초콜릿, 와플, 초콜릿코팅 웨이퍼(wafers), 탄산수
추가 과세	탄산음료: 15 %

출처 : 인도 관세청(www.cbec.gov.in)

- 2016년 인도 남부의 케랄라주(州)에서는 패스트푸드에 14.5%의 지방세(fat tax)를 부과하기로 결정함
- 케랄라 주정부는 지방세 도입을 통해 지역민의 불균형한 식습관을 개선하고 심각한 비만율이 억제되는 것을 기대하였음
- 그러나 인도 전역을 대상으로 통합간접세가 부과됨에 따라 현재 케랄라주의 지방세는 폐지되었음

□ 2017년 9월부터 태국 정부는 음료수(당분 음료, 커피, 차)를 대상으로 신 소비세를 적용해 세율을 높임

- 설탕세는 음료 내 설탕 함량 및 소매가에 따라 결정되며, 설탕 함유량이 정부의 규정치보다 초과될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됨
- 설탕 함유량이 0g이거나, 설탕 대체 성분이 태국 식약청에서 지정한 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
- 또한 태국 국민들의 건강한 음료 섭취를 위해 태국 소비세국은 음료 제조업체들에 2년에 한 차례씩 6년간 단계적으로 음료 내 설탕 함유량을 낮추도록 지시하였음

- 태국 정부는 설탕세 부과로 인한 제품의 급격한 가격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세금 부과 시점부터 2년간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인상하나, 양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인하하기로 결정함
- 이후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된 상한선까지 단계적으로 세율이 인상될 예정임

〈표 II-12〉 태국 음료 관련 소비세율 변동

당분 포함 음료	구 소비세			신 소비세			
	과세기준	과세기준(A+B)		2017.9.1.~ 2019.9.30.	2019.10.1.~ 2021.9.30.	2021.10.1.~ 2023.9.30.	2023.10.1.~
	세율	세율(A)	설탕함유량(B)	과세금액	과세금액	과세금액	과세금액
단위	%	%	g/100ml	บาท/리터	บาท/리터	บาท/리터	บาท/리터
소다수	25	14	≤ 6 6~8≤ 8~10 ≤ 10~14≤ 14~18≤ 18>	0 0.1 0.3 0.5 1 1	0 0.1 0.3 1 3 5	0 0.3 1 5 5	0 1 3 5 5
탄산음료, 에너지 드링크	20	14					
과일주스 및 야채주스(일반)	20	10					
과일주스 및 야채주스(예외)	0	10					
농축액	-	14					
분말형 음료	-						

출처 : 태국 소비세국(www.rd.go.th)

□ 필리핀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설탕세 도입을 발표함

- 필리핀 정부가 비만과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의 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함에 따라, 설탕과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음료에는 리터당 6필리핀 페소(한화 약 127원), 고과당 시럽을 사용한 음료는 12필리핀 페소(한화 약 255원)의 세금이 부과됨
- 설탕 과세에서 면제된 제품은 분유, 100% 천연 과일 및 채소 주스, 식사 대체 및 의학적으로 지시된 음료, 스테비아 또는 코코넛 설탕 청량음료 등임
- 필리핀 정부는 설탕세를 통해 음료의 가격이 상승해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

□ 대만 정부는 설탕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정책과 함께 패스트푸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을 고려하고 있음

- 대만 정부는 설탕 함량이 높은 제품에 대해 아직 특정 품목에 제한적 의무화, 표기강화 권장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나, 설탕세 정책을 개발하여 향후 도입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정부 관계자가 언급한 바 있음<sup>12)</sup>

- 2014년부터 대만에서 논의되어온 설탕세 기준<sup>12)</sup>에 의하면, 설탕 함량이 국내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 및 음료 제품에 대해 0.5%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며, 과세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는 가공식품, 패스트푸드, 보존 조미료, 빵, 케이크 및 설탕 음료를 대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임
- 설탕 함량이 국내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 및 음료 제품에 대해 0.5%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며, 과세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는 가공식품, 패스트푸드, 보존 조미료, 빵, 케이크 및 설탕 음료를 대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임
- 대만 위생복지부는 아동 TV 프로그램에 패스트푸드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 중에 있음
- 대만 정부 조사에 따르면 대만 내 아동이 연간 평균 8,000개가 넘는 패스트푸드 TV 광고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남
- 또한 2018년부터 건강기능식품의 당류 함량이 25g 이하로 제한되며, 열량섭취주의 문구표기가 의무화 됨
- 2018년 초부터 무작위로 공장 검사를 실시하고 규정위반 적발 시 제품 출시 금지, 3만~15만 신 타이완 달러(한화 약 112만~562만 원) 벌금형에 처할 예정
- 고설탕 식품에는 추가 세금이 부과되며, 동시에 설탕함량 경고문이 부착되어야 함
  - 해당 경고는 적색, 청색 및 녹색 등급으로 나누어 소비자에게 설탕 함유량에 따른 영양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

#### 다. 업계 대응동향

- 인도 내 식품 제조기업들은 식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세율이 낮은 식품을 위주로 생산하거나 제품의 이름이나 포장을 변경하기도 함
- 일반 디저트나 음료에 토핑 등이 추가되면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품목만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등장함
- 인도의 디저트 체인 KC다스의 관계자는 “우리는 오직 아무 것도 넣지 않은 바르피, 산데쉬(볶은 치즈도우에 토핑을 얹어내는 음식) 등 평범한 음식만 만들기로 했다”고 언급하였으며, 실제로 KC다스는 망고와 초콜릿을 얹은 산데쉬의 제조를 중단하였음
- 일각에서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이름 등을 바꾸는 등의 단발성 대책도 고려되고 있음
- 과일 젤리나 무스, 페이스트리, 파이는 18%가 과세되기 때문에 일부 제조·판매업자들은 제품명이나 포장을 변경하여 5%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

12) 식품음료신문, 대만도 내년부터 식품 중 설탕 줄이기 나서, 2017.10.24  
[www.thinkfood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7209](http://www.thinkfood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7209)

13) AsiaOne, Taiwan to develop high-sugar diet tax to combat obesity, 2014.7.10.  
[www.asiaone.com/health/taiwan-develop-high-sugar-diet-tax-combat-obesity](http://www.asiaone.com/health/taiwan-develop-high-sugar-diet-tax-combat-obesity)

□ 태국 내 식품기업들은 과채주스에서 과즙 함량을 높이거나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첨가한 제품으로 대응

- 2017년 11월 태국 음료 제조기업 팁코(Tipco)社は 저설탕, 저칼로리 주스 팁코미(Tipco Me)를 출시
  - 마히돌 대학(Mahidol University)의 영양진흥재단(Nutrition Promotion Foundation)이 개발한 팁코미는 저설탕-칼로리의 이점 뿐 아니라 비타민 A, C, E 등 영양이 풍부하다고 홍보함
  - 팁코社は “건강과 미모를 위한, 상쾌하고 비타민이 풍부한 주스 개발을 목표로 했으며 신 설탕세 정책에도 부합하는 주스” 라고 언급
- 2017년 태국의 과채주스 제조기업 말리(Malee)社は 무설탕 100% 과일주스 제품 라인을 확대
  - 말리는 다양한 토마토, 당근, 수박 등 100% 혼합 야채 및 과일 주스를 출시
  - 다양한 비타민을 포함하는 무설탕 저온 살균 주스임

<그림 II -7> 태국에서 유통되는 저설탕/무설탕 음료

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조사 : 팁코(Tipco)</li> <li>· 제품명 : 팁코미(Tipco Me) 주스</li> <li>· 영양정보 : 1리터 당 90칼로리, 지방-0g, 탄수화물-20g, 단백질-1g</li> <li>· 제품중량 : 1리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조사 : 말리(Malee)</li> <li>· 제품명 : 말리(Malee) 100% 혼합 야채 과일 주스</li> <li>· 영양정보 : 1리터 당 90칼로리, 지방-0g, 탄수화물-22g, 단백질-1g</li> <li>· 제품중량 : 1리터</li> </ul>

출처: Tipco([www.tipco.net](http://www.tipco.net)), Malee([www.malee.co.th](http://www.malee.co.th))

□ 필리핀 음료기업은 기존 음료 제조 시 사용되던 고과당 옥수수 시럽(HFCS)을 정제설탕으로 대체하는 추세

- 음료 제조 시 사용되던 옥수수 시럽을 일반 설탕으로 대체할 경우, 절반가량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
  - 이에 필리핀 내 음료 회사의 정제 설탕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필리핀 설탕 가격이 인상하기도 함
- 코카콜라는 필리핀 내 설탕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코카콜라 오리지널 맛

- (Coca-Cola Original Taste) 제품의 생산량을 낮추는 등의 대응을 보이고 있음<sup>14)</sup>
- 필리핀 펩시코는 설탕세 도입 이후 고과당 옥수수 시럽 재고가 다량 발생하자, 이를 해외로 처분하고 있음
  - 필리핀의 고과당 옥수수 시럽 주요 수입처는 중국이나, 설탕세 도입이후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냄

□ 대만 역시 무설탕, 천연과즙을 활용한 음료가 활발하게 출시되는 추세임

- 2017년 코카콜라는 대만에서 코크 노 슈거(Coke No Sugar)를 출시
  - ‘코크 제로 슈가’는 ‘코크 제로’와 같은 무설탕 제품인데, 상품명에 ‘제로 슈가(zero sugar)’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음료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임
  - 코카콜라는 기존 콜라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 개발과 판매에 주력할 계획임
- 대만 차 음료 프랜차이즈 쉬자연(淬自然)은 설탕을 기피하는 대만 트렌드에 맞추어 무설탕에 천연 과즙을 차와 섞어 만든 퓨전차를 출시
  - 과일차 시리즈로 리치, 블루베리, 망고, 체리 등 대만에서 생산된 과일과 천연차를 섞어서 시판함

<그림 II-8> 대만에서 유통되는 저칼로리/저설탕 음료

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조사 : 코카콜라</li> <li>· 제품명 : 코크 노 슈거(Coke No Sugar)</li> <li>· 영양정보 : 375ml 당 1.2칼로리, 지방-0g, 탄수화물-0.4g, 단백질-0.2g</li> <li>· 제품중량 : 375ml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조사 : 쉬자연(淬自然)</li> <li>· 제품명 : 과일 천연차</li> <li>· 제품중량 및 영양정보 : 정보없음</li> </ul>

출처: Taiwan News Online(www.taiwannews.com.tw), 鉅亨網(news.cnyes.com/news/id/4173486)

14) Minimeinsights, Sales volume of beverages in the Philippines fell following sugar tax, 2018.6.17  
<https://www.minimeinsights.com/2018/06/17/sales-volume-of-beverages-in-the-philippines-fell-following-sugar-tax/>

## 4. 기타국

### 가. 규제배경

- 멕시코의 비만율은 NAFTA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1980년 7%에 불과했던 멕시코 국민의 비만율은 2016년 32.4%로 급증함
  - 자유무역협정이 선진 공업국에서 후발 공업국으로 비만을 수출한다는 분석이 제기됨
    - NAFTA 체결 이래로 멕시코 내 야채·과일·주스 등의 식품 소비가 급격하게 줄고, 미국으로부터 싼값에 수입된 육류가 식탁을 채우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
  - 멕시코는 1인당 콜라 소비량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임
    - 멕시코는 전 세계적으로 코카콜라 소비자가 많은 국가 중 하나로, 1인당 연간 180리터의 소비량을 보이고 있음
      - 코카콜라의 가장 큰 소비시장은 멕시코로 연간 1인당 콜라 소비량은 675병으로 집계되어 미국 394병, 브라질 229병보다 훨씬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
- 칠레인들의 식생활은 고지방, 고칼로리 식품 소비에 친숙한 문화로, 고 탄수화물 및 단백질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치즈를 비롯한 유제품 소비 또한 매우 높은 수준임
  -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외식문화가 일반화됨과 동시에 다국적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및 칠레 자본의 패스트푸드 체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메뉴 대부분이 고지방, 고칼로리 제품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
    - 칠레의 높은 비만율은 무엇보다도 칠레인들의 식습관이 육류, 튀김 위주의 고열량, 고지방 구조로 이뤄졌으며 구매력 향상과 함께 외식 횟수 증가, 빠르고 편한 음식 선호 등의 성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
  - 칠레, 세계 3위 탄산음료 소비국가로 연간 1인당 섭취량은 연평균 141리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됨
    - 또한 코카콜라는 칠레에 1인당 하루 평균 190 칼로리의 음료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남
-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UAE의 인구의 70%가 체중 과다, 34%가 비만으로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비만인 것으로 추산됨
  -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정크푸드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고열량 에너지 음식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반면 에너지 소비는 증가하지 않고 있음

- 또한 아랍에미리트인들은 단 맛의 식품을 선호하는데, 이는 연일 50도를 넘는 기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
- 역사적으로도 살이 찐 체형은 아랍 세계에서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볼 수 있으며, 이러한 인식이 여전히 사회에 만연하고 있어 비만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

## 나. 규제현황

### □ 멕시코는 탄산음료 1리터당 1페소(약 59원)의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음

- 멕시코 정부는 높은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고칼로리 음료에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고, 설탕이 함유된 청량음료에 높은 세금을 부과함
- 설탕세가 도입되고,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음료에 미네랄, 비타민 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
- 또한 설탕세 도입 1년 만에 멕시코에서는 연간 탄산음료 소비가 6%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어 설탕세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

### □ 2014년 칠레 정부가 도입한 설탕세는 착색료, 향료 또는 감미료가 첨가된 무알콜 음료를 대상으로 함

- 해당 규제는 100ml 당 6.25 그램 또는 그 이상의 설탕을 함유한 음료에 대해, 기존 세율 13%에서 18%로 세금을 인상하는 것임
- 반면 기준치보다 설탕 함유량이 적은 음료의 경우 기존 세율 13%에서 10%로 인하됨
- 최근 캐나다 요크 대학(University of York)의 국제연구팀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칠레에서 설탕 음료 판매를 조사한 결과 설탕세 도입 후 탄산음료 구매액이 21.6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
- 또한 칠레 정부는 2016년부터 칠레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새 라벨링법을 적용하고 있음
- 포화지방, 열량, 당, 나트륨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품에는 포장지에 경고문구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한 것이 골자로, 경고문구가 적힌 제품은 학교에서 판매할 수 없음

### □ 2017년 10월부터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탄산음료 50%와 에너지음료에 100%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

-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아랍에미리트 '설탕세'의 첫 번째 목표는 전 세계 유가가 낮은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세금 수익을 높이는 것이며, 두 번째는 아랍에미리트의 높은 당뇨병 발병률을 낮추는 것임

## 다. 업계 대응동향

### □ 다양한 음료 제조기업은 설탕 함유량을 낮추거나, 무설탕 신제품 비중을 높이는 등의 대응을 보임

- 코카콜라社は 각 국의 규제현황에 맞추어 설탕함유량을 낮추거나 칼로리를 낮춘 제품을 출시하고 있음
  - 멕시코에서는 제품 내 설탕 함유량을 21% 이상 낮추고, 제품 라인업 중 45%에 저설탕, 무설탕을 적용함
  - UAE에서도 스테비아와 설탕을 혼합하여 칼로리를 낮춘 ‘코카콜라 라이프(Coca-Cola Life)’를 선보였는데 100ml당 27칼로리의 제품으로 기존 오리지널 제품 대비 칼로리를 약 38% 낮춘 것이 특징임
- 펩시코社は 2025년까지 음료 및 식품 포트폴리오에서 설탕과 나트륨 함유량을 감소할 계획을 발표
  - 펩시코는 무설탕, 저설탕 등 설탕 절감을 통해 100칼로리 이하 음료의 비중을 43% 이상 늘림
- 네슬레는 칠레에서 테라페틸(Terrafertil) 브랜드를 통해 아몬드 과일 음료를 출시
  - 테라페틸 아몬드유는 1회 제공량당 25칼로리의 저칼로리로 무설탕이며, 풍부한 비타민을 함유
  - 유당, 콩 등의 알레르기 성분이 없으며, 복숭아, 열대과일 등 다양한 과일 맛으로 풍미를 더함

### □ 설탕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, 나트륨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함유량을 줄인 신제품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

- 칠레의 대형 식품기업들은 트랜스지방, 나트륨, 설탕 등을 적게 넣은 제품을 속속 내놓고 있음
- 멕시코의 사브리타스(Sabritas)와 같은 스낵 브랜드를 포함하여 멕시코에서 출시되는 스낵의 소금 함량이 기존 대비 줄어드는 추세임
- 또한 대형 식품기업들은 신규 건강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개발 투자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

### Ⅲ. 한국수출기업 대응방안

#### 1. 수출 시사점

-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 트렌드와 국별 세금 정책에 알 맞는 제품 개발이 필요함
  - 전 세계적으로 웰빙 트렌드 및 정크푸드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임
  - 따라서 팜유, 설탕, 트랜스지방 등 문제가 될 만한 성분의 함량을 줄이는 등 건강 친화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함
  - 제품 성분을 조정하는 것 외에 제품 가격, 용량, 포장 등에 변화를 주어 설탕세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
    - 설탕 함량을 조절하는 대신 부과되는 설탕세 만큼의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거나 동일 가격에 제품 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
    - 또한 건강 친화적인 제품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식품 표시, 포장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
      - 코카콜라의 경우 저설탕 음료 포장에 ‘No sugar(무설탕)’을 큰 글씨로 기재하거나, 저설탕 콜라 제품의 포장을 기존의 붉은 색 포장에서 초록색 포장으로 변경한 바 있음
  
- 국가별 수출 품목에 부과되는 세율을 사전에 숙지하고,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
  - 수출하는 국가의 정크푸드세, 설탕세 기준을 확인하여, 고세율의 제품 대신 저세율의 제품을 수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
    - 예를 들어, 인도에서는 초콜릿이 일부 들어가거나, 말린 과일이나 씨앗 등이 들어간 제품의 경우 높은 세금을 부과될 수 있으므로,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식재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
    - 또한 여러 국가에서 우유, 두유 또는 우유 대용물, 야채 또는 과일 함량이 높은 주스의 경우 설탕세 제외 품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, 이를 수출 사전에 확인해야 함

## 2. 지역별 시장진출 대응전략

### 가. 북미

□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설탕세 적용 세율이 상이하므로, 세계 도입 결과에 유의해야 함

- 설탕세의 경우 미국 각주별로 상이한 기준 및 세율이 적용되며, 주민투표 등에 의해 도입 이후 폐지되는 경우도 있음
  - 따라서 해당 지역으로의 수출 시 각주별 법령 및 도입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
- 미국에서 정크푸드 전반에 세금이 부과되는 나바호 지역의 경우 소규모 인디언 자치구로 수출에 큰 영향을 없을 예정임
  - 그러나 해당 지역의 세금 도입 효과에 따라 다른 미국 지역에도 정크푸드세 도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연구 결과를 주시해야 함

□ 캐나다의 설탕세 도입은 2018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임

- 캐나다 정부에서는 2018~2019년 내 설탕세 도입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임
  - 설탕세 과세대상이나 세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나, 캐나다 심장재단의 경우 100ml 당 5센트(한화 약 50원)의 설탕세를 매길 것을 제안
  - 캐나다 내 주요 보건기관들을 중심으로 설탕세 도입 촉구 및 세율 제언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향방 주시 필요

### 나. 유럽

□ 덴마크는 비만세가 폐지되었으나, 트랜스 지방 제한 규정은 유지되고 있음

- 정크푸드 식품 전반에 도입하는 비만세는 업계 및 소비자의 반대에 부딪혀 폐지됨
  - 단, 트랜스 지방의 양을 유지류 100g 당 2그램 이내로 제한하는 법률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유지류 수출 시 제품 원료 배합에 유의해야 함

□ 각 식품별로 상이한 헝가리의 설탕세 적용세율에 유의 필요

- 헝가리는 설탕 음료, 봉지사탕류, 아이스크림, 스낵, 식용 파우더 등 다양한 식품류에 각기 다른 비만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므로, 수출 전 세율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
  - 특히,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카페인이 함유된 건강 드링크류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함

□ 핀란드에서는 설탕음료보다는 감미료 음료 수출이 유리함

- 핀란드 설탕세 적용 세율은 설탕 음료가 22유로센트, 감미료 음료가 11유로센트로 감미료 음료가 더 낮은 세율 적용

□ 노르웨이에서는 설탕을 함유한 식품 전반에 세금이 적용됨

- 2018년 노르웨이는 설탕세와 관련하여 2017년 대비 초콜릿 83%, 청량음료 42% 세금을 인상
- 노르웨이 설탕세는 설탕이나 감미료가 포함되지 않은 초콜릿과 제과류에도 고세율이 부과되므로 대상 품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함

□ 프랑스의 탄산음료 설탕세 부과 유의 및 소금세 도입 향방 주시 필요

- 프랑스의 경우 탄산음료 한 캔에 1%의 설탕세 부과하므로, 수출 가격 책정 시 이를 고려할 것
- 또한 2018년부터 프랑스 의회는 염분이 지나치게 많은 식품에 ‘소금세’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므로 소금을 다량 함유하는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향후 정책 도입 향방을 주시해야 함

□ 영국에서는 탄산음료의 설탕 함유량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, 제과류에도 설탕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

- 영국 내 잉글랜드는 100ml 설탕 함유량에 따라 설탕세 적용 세율을 달리하므로, 되도록 설탕 함유량을 낮추고 과즙 등 천연 감미료로 대체하는 등의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음
- 영국의 일부 학계에서는 설탕세 외에 다양한 제과류에 초콜릿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, 제과류 수출업체의 경우 관련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

## 다. 아시아

□ 인도, 식품 구성 원재료에 따라 다른 세율 적용

- 초콜릿, 말린 과일이나 씨앗 등 원재료에 따라 높은 세금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,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 재료를 고려해야 하며, 과일 젤리나 무스, 페이스트리, 파이 등도 고세율이 적용되므로 고세율의 제품을 피하여 수출 제품을 선정할 것

□ 태국의 음료별 상이한 설탕세를 유의해야 함

- 태국은 음료 분류별로 설탕세 세율이 달라지며, 무설탕이거나 설탕 대체 성분이 태국 식약청에서 지정한 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
- 따라서 음료 수출 시 무설탕이거나 설탕 대체 성분 음료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

□ 필리핀의 경우, 고과당 시럽보다 설탕, 인공감미료가 유리함

- 설탕과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음료에는 리터당 6필리핀 페소(한화 약 127원), 고과당 시럽을 사용한 음료는 12필리핀 페소(한화 약 255원)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수출 음료제조 시 고과당 시럽을 배제하고 설탕, 인공감미료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함

□ 대만

- 2014년부터 대만 의료계와 정부가 설탕세를 부과 여부를 검토 중이며, 2017년부터 열량섭취 주의문구 표기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검토 중 이므로, 향후 정책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
- 건강기능식품의 당류 함량을 25g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건강 기능식품 수출 시 당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

라. 기타국

□ 멕시코에서는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주스 등 비탄산 음료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과즙, 천연감미료, 과일주스, 건강음료 등이 유망할 것으로 보임

□ 칠레는 무알콜음료, 설탕 함유량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 품목 선정 시 유의해야 함

- 100ml 당 6.25g 또는 그 이상의 설탕을 함유한 음료는 18%, 이보다 적은 양의 음료에 대한 세금은 10% 세금을 매기고 있음
- 따라서, 수출제품 선정 시 설탕 함유량 6.25g 미만 함유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

□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음료 시장의 경우, 탄산음료 위주 소비에서 벗어나 에너지 드링크, 스포츠 및 건강음료 시장이 유망

- 단, 에너지음료는 탄산음료(50%)보다 더 높은 100%의 소비세를 부과하므로 가격 책정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